

弔 辭

이제 햇보리가 나고 곡식의 씨를 뿌리는 따뜻한 시절이 되었건만 뜻밖에도 한국불교여래종 종정이신 연화당 仁王 大宗師의 원적 소식을 접하니 哀惜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仁王 大宗師의 덕화를 공경하며, 가르침을 따르셨던 여래종단의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께 삼가 애도의 마음을 드립니다.

仁王 大宗師께서는 한결같은 수행과 정진으로 여래종단뿐 아니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의 스님들과 불자들로부터 존경 받으신 불교지도자이셨습니다.

대종사께서 한국불교여래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하시며, 종단의 기틀을 다지셨고, 불교중흥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종단간의 화합으로 불교발전을 위해 앞장서 오셨습니다.

특히나 세상이 각박하고, 혼탁한 시대에 지혜와 혜안을 지니신 스님께서서 우리 곁을 떠나시니 그 슬픔이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仁王 大宗師님을 떠나 보내는 후학들의 마음은 슬픔에 가득하나, 이제 적멸의 그윽한 법향 속에서 편히 쉬십시오 !

그리고, 부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도 그 법향 드리우시고, 다시 육도의 중생을 구제하는 菩薩의 원력으로 우리 곁에 나투소서 !

불기 2560년 6월 1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분향(부회장 홍파 대독)